

제 61 회 졸업식



새로운 세계로의 향해

이사장 · 의학박사 김은미

2013학년도 환일중 · 고등학교 졸업식을 맞이하면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근간을 이루는 중 ·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우리 환일의 교정에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무한한 행복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학교 교정 곳곳에 쏟아지는 햇살처럼 우리의 영혼을 키우고 살피셨습니다. 인내의 참을성과 다른 급우들과의 협동심, 희생, 내 이웃에 대한 사랑,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담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환일의 등갓길을 오르면서 벚꽃의 흐드러진 아름다움을 보았으며, 노란 개나리꽃의 희망을, 푸른 은행나무 그늘 아래서 소리치며 온몸을 던져 뛰며 공을 차던 운동장, 노란 은행잎을 바라보며 입시준비 하던 시간들, 하얀 눈 덮인 교정을 걸어오면서 주님의 위대함을 느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웠던 환일의 시절을 수놓은 기억들입니다.

이제 환일에서 꿈을 먹고 자라나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나의 꿈을 펼치며 새로운 세계로의 향해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햇살 아래서 순풍의 향해가 이루어지는 듯 하지만 이내 먹구름의 거친 파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의 탤런트를 계발하여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세우신 뜻을 가슴에 담고 열심히 똑바로 걸어 가야 합니다. ‘걷는 자 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는 표어를 가슴에 새기고, ‘직업은 무엇이든 좋다 제 1인자가 되자’ 고 열심히, 또 열심히 걸어간다면 우리는 ‘최후의 웃는 자로, 최후의 승리’ 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함이란 하늘에서 예비 된 대로 땅에서 실행됨을 이룹니다. 우리

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며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그 뜻을 헤아리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힘,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역경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의 생활, 이것을 오늘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13년도를 돌이켜 보면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의 노력이 하나로 모아져 좋은 대입성적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것은 교직원과 학생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흘린 땀방울이 모여 이룬 결과입니다. 결과를 미리 생각지 말고 한 발자국씩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걸어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 해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면서 노력합시다. 노력의 힘, 이것 또한 가슴에 담고 앞으로의 생활을 일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인생을 개척해나가고 이루어 나갈 때 모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기원하면서 여러분의 졸업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시편 1편3절)

고등학교 교장 최상호

길기만 한 시간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어느덧 3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앞에는 또다시 새로운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시간도 언젠가는 뒤돌아보게 되는 또 다른 삶의 한 토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다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만들어갈 삶의 매듭은 지난 시절의 어느 단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들이기에 한두 가지 교훈을 쥐어주고 싶습니다.

첫째, 교양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대학의 벽에는 ‘지식은 인간을 스스로 고귀하게 만든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인간은 부자가 되고 유능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교양이 쌓이면 인간은 스스로 품격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격언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교양은 무엇보다 독서를 통해 쌓아가는 것이 첩경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이야기는 시청 화장실에서 청소를 할지라도 독서를 많이 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은 남이 칼보지 못하고 스스로도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의 표어인 “직

업은 무엇이나 좋다. 제 1인자가 되자”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이 스스로 고귀해지는 교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과 계통이나 문과 계통이나 보다 높은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라도 기초교양은 굉장히 중요하며, 요즘 강조되는 학문 간의 통섭도 이 독서력과 교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꿈 많은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직장 초년병으로 첫발을 내딛는 간에 평생의 도움이 될 독서의 습관을 지금부터 꼭 길러주시 바랍니다.

둘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환일학교에서 3년 혹은 6년의 학창생활을 하였으니 다 믿음의 씨앗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 시간 고민하지 말고 십 분간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앞길에는 평탄한 길과 굽이길, 부드러운 흙길과 돌발길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잘나가는 사람이나 안 풀리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석꾼은 천 가지 걱정, 만석꾼은 만 가지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는 꼭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풀어가기 바랍니다. 스스로 강

한 체 할 때는 뒤에서 지켜보시지만 우리가 약하여 넘어질 때 손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공공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인들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것은 그가 여러 가지 좋은 덕목을 가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전쟁터에서도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며 임기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저녁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졸업생 여러분! 봉학산 마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소중한 추억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당당히 어깨를 펴고 걸으십시오. 샘 결의 무성한 가지처럼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도록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식의 의미

고등학교 교감 문영식

환일의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7~8년 전, 미국 미시건주 외곽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졸업식 행사를 위해 졸업생들에게 졸업 가운과 모자를 입히고, 졸업 반지를 구입하게 하고, 학생 개인별로 초대장을 수백 장씩 제작(희망자만 구입하도록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입함)하여 나눠주는 등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은 이틀에 걸쳐 저녁시간에 야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졸업식장에 참석한 가족과 친지, 친구들은 날씨가 추워 담요를 덮고 있으면서도 몇 시간씩 진행되는 졸업식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State)의 학년체계는 우리나라와 달리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연속적으

로 이루어져 12학년(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친 후 거행되는 졸업식은 인생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중요 행사이고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거창하게 하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식은 초등학교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졸업의 참된 의미를 알면서 사회로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졸업을 대하는 느낌이 남다른 것입니다. 지난 몇 년 간 입학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여러분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였고, 때로는 학급을 순회하여 여러분들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1월 어느 날엔가는 본교 강당에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여러분들에게 학교를 직접 안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입학시킨 여러분들이었기에 여러분들이 3년 간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내 자신의 교사로서의 모습을 항상 되돌아보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졸업식’을 의미하는 ‘Commencement’는 ‘시작’ 또는 ‘개시’를 뜻합니다. 졸업하는 이 순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며, 미래를 보다 구체화시키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봉학산 위의 모교를 생각하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졸업을 앞둔 아들들에게

고등학교 학부모회장 김혜경(3-11 최영준 어머니)

오늘 우리 아들들의 졸업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졸업생 학부모를 대표하여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433명의 졸업생 아들들은 지난 3년간 ‘환일’의 교정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알찬 실력과 바른 심성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제 더 큰 내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정든 교정을 떠납니다.

지난 3년간, 늘 우리 아들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깊은 사랑과 열정을 우리 아들들에게 쏟아 주셨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우리 아들들을, 사람

운 사람이 되라고 끊임없이 인도 하셨습니다.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아들들과 함께 선생님도 교무실을 지키고 계셨으며, 수시 원서 접수 때에도 우리 아들들의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작성을 위해 밤늦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수능날 뿐만 아니라 대입 합격자 발표날에도 우리 부모님들 못지 않게 애태우시고 함께 기도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 만큼 듄직하게 성장해서 이제 성인의 문턱에 들어선 것은 모두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임을 평생 감사하며 기억하겠습니다.

환일고에서 주신 귀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 아들들은 더욱 폭넓게 배우고 깊이 사고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만의 개성과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든든한 내일의 주역들로 성장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입시 명문 환일고’의 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빌며 이사장님 이하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을 위한 비상

안녕하세요.
졸업생 장진혁 엄마입니다.
자그마한 몸집에 교복을 맞추고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입학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 졸업입니다.
시험기간에 장맛비 속에서도 언덕길을 오르며 자녀들을 위한 마음에 힘든 줄도 모른 채 참여했던 어머니들의 마음과, 아빠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땀 흘리며 축구를 하던 건강하고 밝은 아이들의 모습들과 마음 깊이 감추어 두었던 끼를 펼치며 크레용 팝 공



마스한 봄바람이 부는 2011년 3월 환일중학교에 발을 들인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멈추지 않고 꾸준히 흘러갔습니다.
신입생이 되었던 날이 얼마 안 된 것 같이 아직도 그 날의 설렘과 걱정 그리고 계획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스쳐지나갑니다. 작년 선배님들의 졸업식이 지나 어느덧 저희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가 중학생으로서 이 학교에 있는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관심과 애정, 그리고 가르침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리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환일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환일고등학교 학생회장 김용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3년 길게는 6년이라는 시간동안 정을 쌓았던 환일 교정에서 마무리를 짓기 위한 졸업식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통해 저희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있을 때 옆에서 항상 든든하게 내편으로서 힘이 되어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께 졸업생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별써 정든 교실, 정든 선생님, 정든 친구들이 있던 환일을 졸업하고 아직은 낯선 사회로 발을 내딛어야



사랑하는 환일고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환일고등학교 이윤규입니다.
교문지도에서 걸리지 않기 위하여 머리를 깎고 교문을 처음 통과한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오늘은 그 3년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들은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단, 저희들만의 힘이 아니라 부모님이 믿어주시고 선생님이 끌어주셨으며, 친구들이 동행해주었기에 3년간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가 추억이라는 창고로 운반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학생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인도해주시고 열심히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일고등학교처럼 선생님들께서 교육에 열성적인 학교에 온 것은 학생들 모두에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저희들을 열심히 지도

연을 하였던 순수한 아이들의 열정 등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이런 추억들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이 교정을 떠나려 합니다.

넓은 잔디운동장 만큼이나 푸르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소망하며 늘 마음속으로 응원했던 작은 아이들이었는데 어느덧 건강하게 자라서 보살피 주신 선생님들의 따뜻한 품을 떠나, 또 다른 내일의 세계를 향해 푸른 꿈을 가득 안고 나아가려 합니다.

이별은 아프지만 새로운 만남으로 성장하게 될 우

인연과 추억

처음에 작기만 하였던 저희들의 꿈을 더 크게 키우도록 도와주셨던 선생님!
그 세심한 배려와 힘이 되었던 격려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지탱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신 부모님!
항상 걱정을 해주셨던 다정하신 그 모습과 철없던 시절부터 계속 돌봐주신 것들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환일중학교를 빛내줄 자랑스러운 후배님들!
활기차고 씩씩한 모습과 언제나 도전하려는 정신, 그 많은 가능성들을 노력으로 마음껏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년 동안 함께 지내온 친구들!

졸업을 앞두고 후배들에게

한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지만, 우리는 환일의 아름다운 교정 안에서 같이 울고 웃으며 많은 추억을 나누기도 하였고,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자신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렇기에 제 가슴속에는 떠난다는 아쉬운 마음과 함께 그동안 환일에서 키워온 이상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는 설렘이 있습니다.
환일 여러분!
'걸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1인자가 되자.'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라는 학교의 교훈을 알고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환일에서의 소중한 추억과 가르침을

중학교 학부모회장 이자경(3-3 장진혁 어머니)

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내일을 위한 비상을 배웠기에, 부모님과 선생님의 많은 축복과 기도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갈 때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환일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추억과 끈끈한 우정을 만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신 선생님들의 큰 사랑과 따스한 마음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중학교 학생회장 장진혁(3-3)

적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더 친해질 수 있었던 우리의 추억들은 언제까지고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환일중학교는 저희에게 커다란 선물을 주었습니다. 마음에 가득 추억이라는 것을 담아 주었고, 선생님, 후배들과의 인연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족함을 깨우쳐 줌으로써 앞으로 정진해 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비록 저희 졸업생들은 이 자리를 떠나야하지만 떠난 후에도 환일중학교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선생님, 부모님, 후배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등학교 학생회장 김용선(3-1)

가슴에 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갈 때입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길이 누군가가 다져놓은 포장된 길일 수도 있지만 내가 길을 다져가야 하는 비포장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앞의 길 상태가 어떻든 우리는 환일에서 길러온 자신감으로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당당하게 이겨내고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 지금 이 자리에서 졸업을 맞이하는 환일인 모두가 자랑스러운 환일인이 되어, 믿음직한 제자가 되어, 든든한 선배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멋진 사람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용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석 졸업 이윤규(3-7)

옆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들보다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같이 밥 먹고, 뛰어 놀고, 공부 했던 추억과, 그 추억을 만들어준 교정을 우리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할 수 없는 경험들, 예를 들어 낙엽 쓸기, 야간 자율학습, 방과후 학습, 가파른 등굣길 등도 그리울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사회로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챙겨줄 담임선생님은 없습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면 뒤쳐질 수밖에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사람이 되어, 부모님과 스승님, 그리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환일의 졸업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하게 사랑합니다! 격하게 감사합니다. 격하게 고맙습니다.

아스라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해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선배라는 호칭이 이제는 이름같이 익숙해졌는데 막상 졸업식의 주인공이 되어 이 자리에 서니 웬지 어색하고 들뜨는 기분이 듭니다. 아직 학교에서 공부할 것도 많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역시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바로 어제, 졸업식 전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던 시절로 돌아가 그 때의 설렘과 떨림, 그리고 수많은 다짐들과 만났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 친구들과 만들었던 추억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등학교 졸업의 기쁨과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게 되는 도전을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새벽 별 보고 등교해서, 저녁 별 보고 하교하는 생활을 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

2014 자랑스러운 환일인상

2014 자랑스러운 환일인상 - 교육부문



곽상경 교수(고려대학교)
환일고등학교 제 5회 졸업(1958년)

▶ 경력

- 금융통화위원
-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평위원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 고려대학교 정경학부 교수
- 중소기업은행 비상임이사
-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 학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 웨인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뉴욕주립대학교 홀바니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2014 자랑스러운 환일인상 - 종교부문



이준성목사(역촌성결교회)
환일고등학교 제 17회 졸업(1970년)

▶ 경력

- 오산평화교회 담임목사
- 인천중앙교회 담임목사
- 역촌성결교회 담임목사(현)
- 서울신학대학원 총동문회장 역임
- 중앙신학교교수 역임
- 서울신학대학교 담임교수 역임
- 성결 섬김마당 공동대표(현)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증진회 이사(현)
-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현)
-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현)

▶ 학력

-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동 대학원 졸업
- 서울신학대학교 목회학박사과정 수료
- Providence Seminary 목회학 박사(D.Min)

2014 자랑스러운 환일인상 - 과학부문



김재윤 과장(국립의료원)
환일고등학교 제 26회 졸업(1979년)

▶ 경력

- 국립중앙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선임과장
- 국립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
- 미국 신시내티 아동병원 방문의사 (WHO fellowship)
- 청구성심병원 소아과장
- 한국다문화연대 의료봉사단 이사
-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 질병관리본부 연구사업 평가단 평가위원

▶ 학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2014 자랑스러운 환일인상 - 사회부문



이창재 검사(전주지방검찰청 지검장)
환일고등학교 제 30회 졸업(1983년)

▶ 경력

- 제61대 전주지방검찰청 지검장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제10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부장검사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법 석사
-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14 자랑스러운 환일인상 - 문화부문



구기운 대표(레디엔터테인먼트)
환일고등학교 제 40회 졸업(1993년)

▶ 경력

- 새누리당 직능특별정책위원회 정책위원
- 사단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 윤리강령재정위원회 재정위원
- 광고모델사업자협회 이사
- (주) 레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 예일기획 근무
- 국제기획 근무

▶ 학력

- 대덕대학교 연극영상과 졸업

▶ 수상내역

- 이노션 우수협력업체 선정(모델에이전시 부문)
- 제일기획 Good Partners (상반기)
- Director Party 최우수 Staff 상(에이전시부문)
- 제일기획 Good Partners (하반기)
- 한국모델협회 주최 모범 에이전시 상 수상

2014대입 합격현황 (종합)

연번	대	학	합격 인원	합격자 명단	비 고
1	서울	대	4명	김민균(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박태현(서양사학과) 이윤규(화학생명공학부) 황선필(농경제사회학부)	정시 1명 수시 3명
2	연세	대	32명	김성재, 조은상(신학) 주수현(컴퓨터과학) 진영환(컴퓨터공학) 외 28명	수시 25명 정시 7명
3	고려	대	20명	강요셉(수학교육과) 외 19명	수시 14명 정시 6명
4	의대		3명	연대 서용석 외 2명	수시 3명
5	한국과학기술원 (KAIST)		1명	조대양	
6	포항공과대 (POSTECH)		3명	박채용 외 2명	
7	대구경북과학기술대(DGIST)		1명	이동민	
8	울산과학기술대 (UNIST)		1명	조광우	
9	육사		1명	이한솔	
10	기타			서울 · 수도권 주요대학 : 107명 기타 대학 : 298명	

교 가

작사 : 조지훈
작곡 : 박태준

